

[바둑]

바둑으로 하나 된 南과 北

北 조대원, 한국 선수 잇따라 꺾고 金 한국女 단체전, 4강서 北 꺾고 준우승 '제1회 두뇌올림픽' 진한 동포애 나눠



제1회 세계마인드스포츠게임즈 바둑 오픈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북한의 조대원(가운데)이 한국의 함영우(왼쪽), 이용희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이버오로 제공)

“남북이 바둑으로 하나가 됐다”

제1회 세계마인드스포츠게임즈(WMSG)가 열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에서 남과 북의 선수들이 선의 경쟁을 넘어 동포애를 나누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오픈개인전 준결승·결승전에서 북한의 조대원 아마 7단은 우승후보로 꼽히던 한국의 이용희 아마 7단과 함영우 아마 7단을 잇따라 격파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그동안 국제 무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바둑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들을 연파하고, 사고를 친 셈이다.

우승을 자신하던 한국 선수들은 서운할 법도 했지만, 조대원의 우승을 아낌없이 축하해줬고 시상대에서도 환한 얼굴로 함께 기뻐했다.

또 지난 15일 열린 남한과 북한 간의 여자단체 준결승전에서도 아름다운 풍경은 계속됐다. 순수 아마추어로 구성된 북한은 한국 프로 3인방의 벽에 막혀 결승 진출이 좌절됐지만, 아낌없이 한국 선수단을 축하해 줬다.

또 남북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교류의 물꼬를 트면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 바둑이 국내에 조금씩 소개되고 있다. 북한대표단은 이번 대회에 모두 11명(남 6명, 여 5명)을 파견했다. 오픈전은 남녀 구분은 없지만 프로기사가 출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북한은 전술상 가장 실력이 좋은 조대원과 조재별 아마 7단을 출전시켰다.

북한의 여자기사 중 황경주 아마 3단이 이번 대회에서 일본의 우메자와 유키카 5단을 꺾는 등 실력이 뛰어난 기사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 바둑의 대표기구인 조선바둑협회는 지난 1989년 설립됐다. 북한선수들은 지난 1991년부터 세계아마대회에 모습을 보였고, 그해 제13회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에서 황희덕이 9위를 차지했다. 이후 북한은 중국에 바둑 유학생을 파견하는 등 꾸준히 실력을 키워며 북한 바둑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특히 2004년 정관장배 대회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조재별이 당시 검토실에서 비공식적으로 두어진 대국에서 중국의

쉬위 5단계에 두 판을 이기면서 중국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현재 평양기원에는 약 500여 명의 아마기사가 있는데 그중 약 50명 가량이 북한의 최고 단위인 아마 7단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최정상급 기사로는 조대원, 이봉일, 박호길, 조재별, 권미현 등이 있다.

한편 김혜민·권효진 5단, 박지연 초단이 한 팀을 이룬 한국 여자 대표팀은 지난 15일 중국 베이징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 대회 여자단체전에서 중국에 1-2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결승전에서 김혜민이 정연 2단계에 승리를 거뒀을 뿐 권효진은 정관장배 5연승의 주역인 중국의 왕상진 초단계에, 박지연은 탕이 2단계에 패함으로써 은메달에 그쳤다.

여자 단체전 동메달을 가리는 3, 4위전에서는 그동안 단 한 개의 메달도 차지하지 못했던 일본이 북한을 3-0으로 꺾고 첫 메달을 차지했다.

마인드스포츠게임즈는 근육 대신 뇌를 사용하는 올림픽이며, 체스·브리지·바둑·체커·중국장기 5개 종목에서 143개국에서 4천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금을 다투는 대회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날카로운 겨룸
중고등부 결승전 4보(56-73)
白 권재구 4단 黑 김영환 4단
(문성중 3) (금구중 1)

〈참고도 1〉 〈참고도 2〉

흑 ▲는 강수였으나 이 수로는 일단 '가'로 찢어서 봉쇄하기 어렵게 해야 했다.

김영환군은 고심 끝에 59로 후퇴하고 흑 63까지 일단 사는 모양을 갖췄는데 이번에는 권재구군이 욕심을 부린다. 백 64가 가벼운 수로 이 수로는 좌변 '나'에 곳을 차지하여 왼쪽의 흑대마를 위협해야 했다.

흑 65로 붙이고 67로 다시 겨붙인 수가 수가 날카로웠다. 이때 백은 '참고도 2'의 1로 끊고 싶으나 그렇게 되면 흑 2 다음 8까지 백이 큰 일난다. 결국 선수를 뽑아 73으로 달려가서는 흑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김영환군이 빛나자 이번에는 거꾸로 권재구군이 기세를 올리기 시작한다. 일단 백 56으로 짚을 던져 원군을 확보한 다음 대뜸 58로 봉쇄해 흑 대마를 필박하기 시작한다. 이 수는 일견해서 엉성할 듯 하지만 의외로 강력해서 반발수단이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경기도, 전국체전 바둑 2연패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기도가 바둑 2연패를 달성했다. 지난 13, 14일 순천 청암대학에서 이 대회 시범종목으로 치러진 바둑경기에서 경기도가 2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은메달은 인천광역시, 동메달은 서울특별시에게 돌아갔다.

5개 종목 273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바둑 대회에서 경기도는 여성부 조경진 선수의 금메달을 비롯해 전 종목에서 고르게 활약, 2위 인천광역시를 큰 점수 차이로 따돌리며 우승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일반부에서는 이상현(서울) 선수가 송홍석(경기) 선수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동시에 다음날 열리는 제3회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 한국대표로 선발됐다.

어린이부에서는 제주의 현승민 선수가 4강에 3명이나 오른 경기도 선수들을 차례로 꺾고 제주도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학생부에서는 인천 선수 3명이 4강에 오르는 강세를 보



였다. 남녀 페어부에서는 전남의 함영우, 송예을 선수가 정상상을 받았다.

한편 6년째 전시종목으로 치러진 바둑은 대한체육회 준가맹 종목이지만 2010년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확정돼 내년에는 정식 가맹종목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호, 명인전 결승행 '빨간불'

목진석에 빼어난 패-이세돌-원성진 모두 이겨야

이창호 9단의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 결승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창호는 지난 14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 본선리그에서 목진석 9단에 181수 만에 불개패 당했다.

이로써 이창호는 종합전적 4승 3패를 기록하면서 우승 후보인 원성진·이세돌 9단과의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해야 결승 진출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이 경기를 모두 이긴 뒤 원성진 9단과 동률 재대국을 또 펼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결승 진출이 힘들어졌다.

반면 현재 6승2패인 원성진은 본선리그에서 이창호에게 지더라도 동률 재대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국내 최고 우승 상금인 1억원이 걸린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 2시간 60초 초읽기 3분이며 리그전 1, 2위가 결승 5번기로 우승자를 가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미경 초단, 김선미 2단 꺾고 여류국수전 8강

조미경 초단이 제14기 가그린배 프로여류국수전 본선 8강에 올랐다. 조미경은 지난 15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 16강전에서 김선미 2단을 233수 끝에 불개로 물리쳤다. 이로써 조미경은 박지은 9단과 김은영 초단과의 경기 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현재까지 국내 여자 바둑은 루

이나이웨이·박지은 9단, 조혜연 8단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류국수전을 통해 새로운 얼굴이 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회 제한시간은 3시간에 60초 초읽기 5회, 결승전은 3번기 로 진행되며 상금은 우승 1천1백만원, 준우승 500만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HOME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 062)385-9994 H.P.011-622-8650

입 대 (신축건물)

- 1층: LG전자 판매점(11월중순 오픈)
- 2층: 100평
- 3층: 140평 (권장) 의원, 학원 등

입지장점

1. 금호지구 - 풍림지구 - 순환도로 교차점
2. 대로변, 우수 한 노출성
3. 금호마재, 풍림역, 풍림지구 접근성 탁월
4. 광주 최고수준 교통망
5. 수려한 건물 외관
6. 합리적인 입차 가격

"상가는 입지가 핵(核)"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의 자산실행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Tel: 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합 수완지구 상업용지 건축상판

침단지구상업용지 주유소 650평 35억 600평 16억
1100평 40억(병당 470만) 200평 22억(병당 1100만)

수완지구개발지구 팔복연습장 : 120억
이주지대지 광주지역 녹지
협의양도인대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생활대체육지 불투공장부지 2900 2600 4900평

신창택지개발지구 수안동 4차선집 1200평 1800평
상업용지 140평 근방 122평 80평 북구본촌동 850평

전용가능한금매물
자연녹지 : 3800평-대형차진입가 6차선집
생산녹지 : 2800평-평동공단인근 특가상판

우당임야 (인수원 복지시설 골프장 측사) 등
담양 25만평 정성 14만평 보성 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 50만평
부지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매가 17억 5천만원

쌍촌동 260평
2중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병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 최고의 절세형 물건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투자유망물건 다양 보유 (0천만원~ 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법원경매전문 GG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담당)
☎ 062-226-0047
H-P 010-3895-7800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아파트/빌라

소재지	면적/층	건평	최저가
부산동 무로동	33평	191천	8천
화성동 오미동	46평	197천	191천
진월동 중동	33평	985백	6천5백
대곡동 삼의	32평	821백	5천6백
연대 세한	24평	485백	3천2백
학동 신대동	46	196천	191천
도산동 호남	24	583백	3천7백
문정동 대우동	33	623백	4천3백
주월동 현대	31	983백	6천5백
월계동 건원	36	191천	7천7백
금호동 리안	32	829백	6천2백

▶원룸/상가주택/오피스텔

소재지	대/건	건평	최저가
성동동	63/148	492천	25천
금남동	61/147	394천	297천
송정동	100/190	494천	391천
계원동	65/119	398천	291천
두암동	56/104	294천	197천
유촌동	60/133	194천	197천
중앙동2기	58/195	143천	84천
주월동	47/63	193천	5천
두암동	62/171	593천	297천
중흥동	71/162	391천	197천
월계동	55평	292천	9천
화성동	60/148	492천	8천
동원동	58/195	5천	2천
오차동	상가	2천	1천
계원동	40평	496천	297천
중앙동	15평	623백	3천
대림동	10평	4천	1천
동원동	11평	4천	2천
구원동	20평	9천	5천
금호동	15평	7천	3천

▶주택

소재지	대/건	건평	최저가
월산동	61/40	194천	7천
중흥동	48/52	191천	8천
소촌동	57/55	829백	4천9백
문안동	41/58	194천	195백
오차동	43/50	193천	9천
두암동	39/41	983백	4천3백
중흥동	34/17	621백	2천7백

▶토지/공장

소재지	대/건	건평	최저가
신항동	전627평	499천	292천
장성동	전448평	7천	4천
목동	636/300	599천	494천
나주노안	대107평	1천130	6백34

한길부동산중개
상무지구518공원앞 062)385-2800, 011-607-1235

쌍촌동 상무지구 518공원부근 중심상권도로변 3층건물
대240㎡(72.6) 건340㎡(103) 수입문나루 레스토랑
추천업종 : 패밀리레스토랑, 대형차인호프전문점 최적합
매매가 : 5억7천만원(총2억7천만원포함), 현금매수약3억

BEST 상가주택(원룸건물)추천물건

- ① 상무지구518공원힐스테이트아파트입구도로변 대196㎡, 건430㎡ 매매가5억
- ② 금호지구 진흥동블록 아파트입구 도로변 대363㎡, 건680㎡ 매매가7억5천만
- ③ 유촌동블록을 뒷밭부근 대181㎡, 건271㎡ 매매가5억

자세한 내용은 상담해주세요.. (그외 물건 다량보유)

추천 상무지구 최고오지상권 1층상가(분양상가) 건95㎡ 매매가7억

사원모집 가족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모십니다. 상가입대(점포매매)전문 : 남녀0명